

2022년도 주요 시정성과

■ 「소통」과 「협치」 행정을 시작하였습니다.

- 17개 읍면동 순회 열린간담회(7.12.~7.27.) -시민참여(4,000명), 건의사항(506건)
- 365일 시민소통 위한 ‘시장과의 직접 만남의 날 (아산형통) 운영’ (8.31.~)
- 관내 기관·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기반 마련
 - 「아산사·아산교육지원청」 아산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(8.10.)
 - 「아산사·아산경찰서·아산소방서」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(9.2.)
 - 「아산사·아산우체국·우체국공익재단」 충청권 최초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(9.13.)
 - 「아산사·기업·대학」 산·학·관 업무협약 체결(9.27.)
- 정책의 수립·집행·평가 과정의 시민참여 기회 제도화를 위한
「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정(12.15.)

■ 「문화·예술의 도시」로 거듭났습니다.

-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「아트밸리 아산」 도시 브랜드(BI) 개발
- 아트밸리 순환버스(428번) 시범운행(8.1.~) / 1일 6회 왕복 운행
- 제3회 아산시 락페스티벌 「달그락 CONCERT」(8.20.) / 신정호 아외음악당 / 4,000명
-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(8.26. ~8.28.) / 신정호 아외음악당 / 3,000명
-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페스티벌 「100인 100색전」(12.1~1.12.) / 신정호 카페갤러리
 - 신정호 인근 카페 25곳을 갤러리화하여 국내외 미술작가 103인의 작품 187점 전시
-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(12.12.) /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 / 1,500명
- 환경과학공원 미디어아트 조성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
 - ‘23 도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
- 생태와 자연이 어우러진 신정호 명품공원 조성, 「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」 착공(12.1.)
- 관내 문화예술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「아트밸리 오늘은」(市누리집) 운영

■ 「글로벌 산업·경제도시」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아산리더스밸리 음봉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7.11.)
 - (위치) 음봉면 소동리, 둔포면 신양리 일원(335,084㎡) (사업비) 957억 원
※ 2026년 준공 예정
- 기업 투자협약(MOU) 체결
 - 대상(주): 인주일반산업단지(3공구), 2,000여 명 고용 창출
 - 한화솔루션(주):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, 200여 명 고용 창출
- 유럽 기업 3社, 1억 5,000만불 외자유치
 - 에드워드(영국): 탕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, 7,000만 달러
 - 로타렉스(룩셈부르크): 탕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, 1,000만 달러
 - 파이프베컴(독일): 인주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, 7,000만 달러
- 둔포 아산제2테크노밸리 내, 「해태제과식품(주) 아산공장 준공」(7.12.) 및 「(주)크라운제과 아산공장 착공」(8.24.)

■ 「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」을 향한 기반을 다졌습니다.

- 「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
개정을 통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('23년 시행)
 - (대상)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가정 (단위: 원)

구분	첫째	둘째	셋째	넷째 이상
현행	30만	50만	100만	200만
조정	50만(↑20만)	100만(↑50만)	1,000만(↑900만)	1,000만(↑800만)
※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, 200만원 씩 5년간 분할 지급				

- 보훈의전 시행 및 보훈가족 예우 정책 수립(참전유공자 수당 인상)
 - (보훈의전) 시 주관 모든 행사에 보훈대상자와 유공자 우선 예우
 - (보훈가족 예우) 보훈종합계획 수립, 참전유공자 수당 월20만원→30만원 인상
- 독거노인 및 가정위탁아동 대상 찾아가는 「금빛 어르신 돌보미단」 운영
-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(9.1.~)
- 「아산시가족센터 둔포 분원」 개소(11.16.)
- AI·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선정 ‘충남 최초’ 시행